

###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일원

#### 'K-배송드론 서비스' 업무협약

원주시는 K-배송드론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신림면 황둔리 일원에서 이뤄지는 K-배송드론 상용화 실증 사업에 본격적 착수했다.

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K-배송드론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컨소시엄 및 참여 캠퍼장과 함께 '2차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문기 부시장을 비롯해 조영희 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김경진 캣츠드론 대표 등 컨소시엄 참여기관 관계자와 배송부지를 제공하는 매봉힐링, 원주키즈, 피노키오, 한울오토 등 황둔리 소재 캠퍼장 4곳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드론 배송 상용화 실증 사업의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동시 배송 시스템 도입과 배송 물품 다양화 등을 통해 K-배송드론 상용화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을 활용한 공공행정서비스 실증도 병행한다. 4월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를 시작하고, 3D 공간정보를 구축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문기 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원주시 드론 배송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난해 실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올해 사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행정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동 정세 장기화에 대응...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환

김진태 지사, 기존 TF를 '비상경제 대책본부'로 격상 지시

'비상경제 점검 확대간담회' 개최, 100억 원 규모 긴급자금 최우선 신속 집행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월 2일(목), 중동지역 정세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 비상경제 대응 TF를 '비상경제 대책본부'로 격상하도록 지시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에 나섰다.

비상경제 대응 TF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3월 12일부터 운영 중이며, 민생물가 안정, 수출지원, 에너지 안정화, 농정 수급, 환경 수급 5개 팀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도는 오는 4월 7일(화) '비상경제 점검 확대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최우선으로 신속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공공부문 중심의 에너지 절약 추진 상황을 면

밀히 점검하고, 추가 절감 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4월 2일(목) 해군 제1함대 사령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와 군의 협력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해군 제1함대사령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 군장병의 복지향상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해군 제1함대사령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프로그램의 홍보를 통한 지역 참여 확대 ▲군장병의 문화 체육 활동 참여를 통한 복지 증진 ▲지역대학과의 협력기반 마련을 통한 청년 유입 확대 ▲도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및 고향사랑기부금 정책 홍보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와 해군 제1함대가 다양한 분야를 두고 실무적 협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석 기자

### 횡성군, 안흥면 농촌재생

#### 2개 핵심사업 주민설명회

횡성군이 안흥면의 정주 여건 개선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의 본격적인 소통행보에 나섰다.

군은 2일 안흥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특화지구형)'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동일한 시기에 추진되는 두 핵심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업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촌협약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안흥다목적센터를 증축하고 배후 마을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문화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9월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은 2029년까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안흥의 특산물인 '팥'을 활용한 농촌융복합 산업 발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임대주택 건설과 유해 시설 정비, 주민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 속초시,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민생경제 안정 총력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물류비 상승 대응방안 마련·점검



속초시가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4월 2일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물가와 기업 경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한 물가안정과 지역소비 촉진, 지역업체 상생협력 체계 강화, 이자 차액 보전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급 관리, 취

약계층·농어업인 지원 등 주요 과제에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시는 먼저, 올해 상반기 중 1,200억 원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하고 대상 사업에 대한 전략적 관리에 나선다. 현재까지 상반기 목표액의 53% 수준을 집행했으며, 잔여액에 대해서도 신속 집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계약 분야에서도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을 고려해 납품기한 연장 및 공기 조정, 지체상금 부과 면제 검토 등 유연한 관리를 펼쳐 업체의 부담을 낮춘다. 지난 3월 23일부터 구성된 비상경

제 대응 TF도 상황 안정 시까지 지속 운영해 생필품 가격과 유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유통 질서 점검과 불법행위 단속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에 이어 진행된 현장 시찰에서는 관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를 방문해 수급 상황과 생산 여건을 점검하고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종량제봉투 재고 점검 결과, 현재 보유 중인 재고와 제작 중인 물량을 포함할 경우, 단기 내 품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로서는 종량제봉투의 추가 생산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생활물가와 지역경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평창군보건의료원, '마음 더하기, 엄마 되기'

평창군보건의료원은 관내 임신부와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마음 더하기, 엄마 되기' 출산 준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겪는 신체 변화를 알고, 실질적인 신생아 돌봄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감 있게 부모 역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은 두 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남부권(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은 오는 2026년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평창건강관리센터에서 열리며, ▲북부권(용평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은 4월 20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소그룹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임신 중과 분만 후 나타나는 산모의 신체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시작으로, 올바른 모유 수유 방법과 자세 교정 등 실전 수료 교육이 이루어진다. 또한 예비 엄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자가 유방 관리법을 다루어 효율적인 젓갈 조절과 젓꼭살 예방 비법을 전수하며, 속삭여 싸는 법과 트림시키는 방법 등 신생아 돌봄에 있어 필요한 기술을 직접 몸으로 익히는 실습 시간도 진행된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세심한 지도를 통해 예비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을 준비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교육 전까지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남부권 평창권역팀(033-330-4879) 북부권 봉평권역팀(033-330-4971)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 동해시, 행사준비 총괄점검·실행체제 전환



동해시가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와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전 분야 준비상황에 대한 총괄 점검에 착수하며, 대회 준비를 '실행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

동해시가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와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전 분야 준비상황에 대한 총괄 점검에 착수하며, 대회 준비를 '실행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

도민체전은 개막까지 약 71일, 장애인체전은 약 4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해시는 경기 운영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의 수용태세를 점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먼저 경기장 시설 정비와 종목별 운영 준비를 마무리 단계로 끌어올리고, 실제 대회 상황을 가정해 현장 점검과 운영 리허설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선수단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장 동선과 운영 인력 배치도 세밀하게 조정 중이다.

이와 함께 숙박, 음식, 교통 등 방문객 수용을 위한 도시 기반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되고 있다. 지역 내 숙박업소와 협력해 객실 확보와 서비스 관리에 나서시는 한편, 음식위생과 친절도 향

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기장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혼잡 구간 분산과 주차 관리 등 교통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 관리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동해시는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장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상황 대응체계와 의료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점검과 재난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시인 참여 기반도 본격 가동되고 있다. 시는 자원봉사자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를 체육행사로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숙박·음식·관광·상권을 연계한 방문객 맞이 전략을 통해 체전 수요를 지역경제로 확산시키고, 동해시의 도시 경쟁력과 관광매력을 동시에 알린다는 구상이다.

동해시는 앞으로 경기장과 운영 준비, 자원봉사와 시민 참여, 관광·상권 연계, 개·폐회식 분위기 조성 등 도민체전 관련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순차 공개하고, 연속 보도를 통해 시민과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심규연 동해시장은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은 동해시의 역량과 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라며 "남은 기간 전 분야 준비를 빈틈없이 점검해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대회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1989 신농박람회

우리농에서 자란 것들로

1995 농박박람회

농민과 함께하는 농심전심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

2025 농심전심

농민과 함께하는 농심전심

농업의 가치 국민과 같이

2026년도 농심전심의 길로 나아갑니다

농협